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형 뉴딜 추진 거버넌스 구축

도·민주도당·도내 대학
도-당-학 뉴딜 협약 체결

사업 발굴·추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행정·제도적 지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더불어민주당-전북도내 대학 전북형 뉴딜 업무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내 대학이 맞손을 맺었다.

도는 지난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및 도내 7개 대학과 함께 '도-당-학 전북형 뉴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뉴딜의 실질적인 사업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군산대 박병선 총장, 군장대 이계철 총장, 우석대 남철원 총장, 원광대 박맹수 총장, 전북대 김동원 총장, 전주비전대 홍순직 총장, 전주대 류두현 부총장이 참석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그린뉴딜 1

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담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2023년까지 5년간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분기별 실행계획을 수립·보완하고 있다.

실행계획을 통해 신규사업의 논리보

강과 추가 사업발굴, 2022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공모사업 선제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북형 뉴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행정·제도적 지원,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으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이날 맺은 협약을 발판삼아 정치권, 도내 대학과 함께 전북형

뉴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발굴 등 내실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 전북민의 특화된 사업발굴과 발굴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대학과의 힘을 합쳐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도민체전 종목별 개최지 '윤곽'

시범 포함 35개 종목 중 18개, 익산에서 열려
전주, 수영 등 5개·순창, 테니스 등 2개
부안, 체조 등 2개·나머지 시·군 각각 1개씩

올 하반기 분산 개최로 치러지는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의 종목별 개최지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지난 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 진행되는 도민체전 관련 세부 경기 일정이나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등의 협의로 이뤄졌다.

우선 35개 종목(정식 34개·시범 1개)의 경기가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가장 많은 종목 경기가 열리는 곳은 익산이다. 당초 올해 도민체전은 익산시 일원에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분산 개최로 결정된 바 있다.

지역별 개최 현황을 보면 골프와 궁도, 민속경기, 배드민턴, 볼링,

유도, 육상, 마라톤, 자전거, 축구 등 18개 종목이 익산에서 펼쳐진다.

전주에서는 검도와 게이트볼, 당구, 레슬링, 수영 등 5개 종목이 열린다.

소프트테니스와 테니스는 순창에서 바둑과 체조는 부안에서 펼쳐진다.

군산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에서는 각각 1개 종목이 예정 돼 있다.

한편 올해 도민체전은 개·폐회식 없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개최종목도 기존 38개 종목에서 35개 종목만 열린다. 특히 순위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으로 치르기 위해 각 종목별 순위만 책정하고 종합순위(점수)도 없다. /장문성 기자

생태문명 조례, 기후위기 대응 '길라잡이'

도, 전국 광역자치체 최초 제정... 삶의 방식 전반에 추진 기반 구축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라잡이가 될 '생태문명 선도조례'를 지난 9일 제정했다.

도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시·도 최초로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의 산림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발전 도모하며,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산업과 연계해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 선도

정책지원, 자문위원회 등의 규정을 담았다. 생태문명 선도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규정했다.

▲(제2조~제3조, 정의·책임)=생태문명을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며, 도지사는 전북도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다.

▲(제4조, 종합계획)=생태문명 선도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생태문명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등을 마련한다.

▲(제5조~제7조, 정책지원)=도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사·연구 및 포상규정을 뒀다.

▲(제8조~제15조, 자문위원회)=생태문명 선도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25명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정책을 심화·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문명 중점과제를 발굴, 생태문명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로 기초조언, 정책포럼 분과 토론회 및 기업의 생태문명 실천사례 등 생태문명 컨퍼런스를 9월 중에 개최해 도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도와 정책포럼'을 통해 생태문명을 공론화·구체화해 종합계획(2022~2028년)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 가치다"라며 "생태문명 선도조례 제정으로 기후위기 등에 따른 미래전환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 14개 시·군과 함께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사업 본격화

스타트업 육성·투자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유망 스타트업의 역량강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2021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멘토링·보육을 지원하고, 초기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이다.

전북특구본부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2곳을 수행기관(주요강) 전북대학연합기술지주)으로 선정하고, R교육,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전 과정을 종합지원한다.

올해는 본 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65건을 발굴하고, 초기 기업에 80여명의 투자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특구본부는 2015년 전북특구 지

정이후 지난해까지 77개사 대상 339억 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현재 전북형 뉴딜에 부합하는 혁신 창업 분야(소세, 디지털, 그린)의 스타트업 및 창업자를 집중 발굴·모집 중이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해 올해 건립된 전북테크노센터 2층 코워킹스페이스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모집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필요시 추가모집 예정이다.

2021년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특구재단 홈페이지(www.inopolis.or.kr)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이메일(memoret1474@inopolis.or.kr)로 접수하거나 전화(063-905-9753)문의하면 된다.

조용철 전북특구본부장은 "전북특구의 기술금융 네트워크 및 지역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투자플랫폼을 고도화해 유망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https://council.buan.go.kr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제8대 부안군의회 개원 3주년

군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부안군의회 7월 ~ 9월 회기 일정

- 제323회 임시회(07. 13. ~ 07. 22.) : 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등
- 제324회 임시회(08. 31. ~ 09. 14.) : 군정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등

부안군의회 클린민원 상담센터 운영

- 접수내용 : 군정에 관한 내용 중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 접수문의 : 부안군 의회사무과 의정팀 (☎ 063-580-4092)



부안군의회
BUAN COUNTY COUNCIL